

트럼프 2.0 시대... 반도체·자동차 中企, 美 진출 '좌초' 우려

中企연구원, '中企 대응 방안' 세미나 중견社 투자계획 '차질' 불가피 전망
 中企 연구위원 "품목·국가 다변화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트럼프 2.0 시대)가 시작하면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의 잠재적 진출이 '좌초'될 것이라 우려다.

반도체는 미국이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ct)을 통한 지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어 삼성전자 및 현지 동반진출 협력 중견기업의 투자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다.

자동차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축소될 것으로 보여 현대자동차와 현지에 동반 진출한 중견기업 등 협력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거시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로 인플레이션, 환율상승, 금리상승 등이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미국의 신산업 규제에 미국내 창업이나 진출을 염두에 둔 테크서비스 관련 기업은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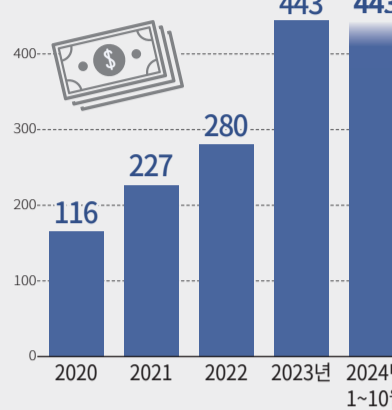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9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관련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견연구원 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1기보다 더 강경하고 파급 효과 등 통상환경에 변화가 큰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및 의견수렴을 위한 '통상 협의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 시장 진입 촉진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트럼프 2.0 시대엔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국내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으로 저가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협력관계가 큰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를 재정비하는 데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이다.

임 연구위원은 "3대 주요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간 미국 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하

나 자동차부품 AS시장 개척 지원, 미래차 부품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반도체는 미국 수출 통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수출지원센터, 관세사 등을 활용해 해당 품목에 대한 선별 컨설팅을 제공해 대중수출기업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대선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실장은 트럼프 2.0 시대의 지원정책으로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요인 포착 및 개발 ▲대미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아세안(ASEAN) 및 멕시코 등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도움 등을 꼽았다.

김종덕 실장은 "미국의 협력 요청을 받은 조선산업, 원자력 발전 및 소형 원자로,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정책을 실행하면 거대한 시장 및 풍부한 수요처, 법인세 인하와 같은 기회요인과 경쟁 심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미국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조주현 중견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자는 관세와 보조금, 에너지와 환경 등 분야에서 분명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주의도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중동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면 전 세계의 경제와 무역환경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지혜를 모아 대응전략을 잘 마련하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외교적·정책적 노력에 따라 기회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이병희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 외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재민 본부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근태 전북지회장 ▲KAPA 정책연구소 이경진 소장 등이 참여,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의결권 자문사 '3자 연합' 제안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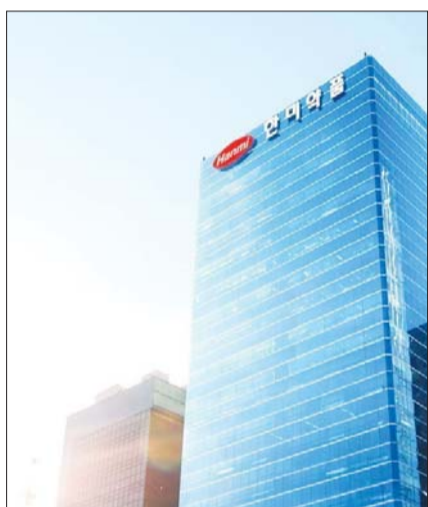
3자 연합, 이사회 구성 재편 시도
 의결권 자문사 '논리 모순' 지적
 대주주 신뢰·기업가치 제고 방침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이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의 주주 제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19일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3자 연합 측의 주주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 등 이사 2인 선임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3자 연합 측은 '정관 변경'과 '이사 2인 추가 선임'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관변경 안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건은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이사 추가 선임 안건을 통해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1인과 추가 1인 자리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을 올린다. 3자 연합 측은 이 두 안건을 모두 통과시켜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을 6대 5 비율로 재편성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ISS는 "3자 연합이 현재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고, 사업 실적에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왜 그렇다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대주주인 3자 연합 구성원을 신규 이사회 멤버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소유와 경영 분리 논리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SS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자본준비금 감액'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안건 통과 시 차기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재원으로 추가적인 배당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도 ISS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론은 전문 경영을 주장하며 속으로는 경영권 장악을 도모했던 3자 연합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영권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약품그룹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체제 및 관리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강경한 방침으로 그룹 전체를 점검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비롯해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 등 5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한미사이언스의 손실 규모는 약 81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당 금액은 고발장에 기재한 혐의 관련 금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기준 자기자본 대비 0.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지주회사가 계열사 경영진 다수를 대상으로 집단 고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

영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고발 사항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사항에 대한 부당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약품그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은 박○○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 한미약품 사내이사 등으로 이름은 비공개 처리됐다. 다만,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을 고려하면 이는 각 각 박재현 대표이사과 박명희 사내이사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형제 측보다는 3자 연합 측에 유리한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3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경영권 갈등이 잇단 고소·고발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연합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의결권 공동 행사에 합의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3분기 국내은행 순이익 6.2조... 전분기 대비 1조 감소

금감원,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강화 방침
 예대금리차 축소 영향, 이자이익 감소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3000억원 감소했지만, 비이자이익은 8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

계됐다. 금융감독원이 19일 '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통해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7조2000억원) 대비 1조원(13.9%) 감소했다. 다만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전년 동기(19조5000

억원)와 비교해 7000억원(3.4%) 감소에 그친 18조8000억원을 유지했다.

은행별로 보면, 시중은행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3조8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지방(4000억원) 및 인터넷(2000억원) 은행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

(ROA)은 0.65%,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55%로 각각 전분기 대비 0.12%포인트(p), 1.83%p 하락했다. 1~3분기 누적기준으로 ROA 0.66%, ROE 8.8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6%p, 0.95%p 둔화됐다. 항목별로 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4조9000억원) 대비 3.9%(3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이자수익자산이 0.8% 증가했지만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기별 이자이익은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이자마진이 축소되는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리스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